

# P.F.A. 2021 선교소식지

##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



### Malawi P.F.A. Vision Centre.

말라위 비전센터 땅밟기를 시작으로 Malawi Project 가 시작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모든분들께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방문계획이었던 말라위를 지난달 부터 국경과 공항이 열려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말라위에 1780 스퀘어미터 땅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여지길 기도 하며 다시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왔습니다. 담공사를 시작 으로 이곳에 PFA 귀한 사역의 장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남아공도 백신접종과 락다운 1로 하양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GTC 신학교와 ANMC 교회사역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 간듯 합니다. 저희도 부부도 백신접종후지만 주의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1

**MIKE & CHIKONDI**

선교사 후보생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MALAWI PROJECT**

말라위 PFA Vision  
Center 를 위해 기도 해 주  
십시오

3

**남광우, 민수정**

민수정 선교사 암투병 과 남  
광우 선교사와 협력 사역을  
위해 기도 해주세요



새 아기에게 주님의 축  
복을, 타국에서 받은 하  
나님의 첫 선물



갓난 아기들이 자라서  
이제는 주일학생으로  
찬양까지



GTC 졸업생과 재학생  
AFRICA 선교 특강

## 교회사역과 신학교사역이 비대면 에서 대면으로

남아공 백신접종이 저조한 가운데 락다운이 하향됨으로 인해 이제 모든사람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1회 신학교 졸업이후 2회 신입생19명이 새롭게 학기를 시작 했습니다. 대분이 말라위 학생들과 짐바브웨, 콩고학생입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에 저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로 인해 비대면 예배와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대면예배와 학교수업에 마스크 착용과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바빠 예전으로 돌아가 포옹하며 인사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5월 장모님소천이후 지난 9월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에 자식된 도리를 하지못함에 아내와 친지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실시간 영상으로마 천국환송예배에 인사도 드리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 했습니다. 위로예배와 환송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말라위가 코로나로 모든 국경과 공항이 폐쇄됨으로 계획했는 말라위 방문에 차질이 있었으나 지난달부터 해제가 되어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에 구입한 땅을 밟으며 기도 하는시간과 말라위 PFA 법인설립등 현지 선교사 파송후 사역할 사역지를 준비해놓고 왔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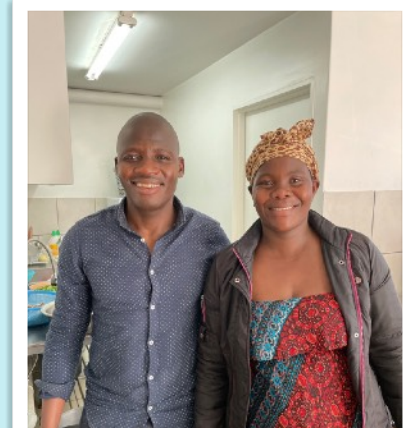
다. 비전센터 담공사를 시작으로 말라위 프로젝트가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 될수 있기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차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신학교와 초중학교 방과후수업 사역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 Mike and Chikondi PFA 첫 파송선교사후보 부부

Chikondi 란 뜻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처럼 사랑스러운 부부가 주 6일 매일 5시간씩 선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ANMC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기있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이 마쳐지면 목사 안수와 함께 파송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역지는 말라위 Mkhlanjoka Primary 성경교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PFA 에서 1070 명의 학생급식을 후원하고 있는 학교내에 비어있는 집

## MIKE CHILEMBA AND CHICONDI CHILEMBA

마이크는 1982년생으로 크리스찬 부모밑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후 말라위에서 살다 2013년 직업을 찾아 남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일을 하던중 2016년 저희 교회출석으로 인해 저희 신학교 GTC 2년을 마치고 현재 ANMC 전도사로 섬기며, 아내 치콘디는 1990년 생으로 캐톨릭신자 아버지와 무스림 어머니밑에서 성장하여 10년전 마이크와 결혼 하여 슬하에 9살 된 딸 Purity 와 3살된 아들 David 을 두고 있습니다. 늘 옆에 책을 가지고 다니는 마이크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와 나눈후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전도폭발 16주 훈련 후 2018년에 저희 교회 안수집사 선거에서 교우들의 다수로 안수집사로 섬기다 신학교 졸업후 교회 전도사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11월26일 말라위로 PFA 소속선교사로 ANMC 교회파송을 하게 됩니다.



## LOREM IPSUM

내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사역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남아공 ANMC 교회에서 매주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는것을 보면 안심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첫 사랑을 잊지 말고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급식으로 인해 결석하는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3년동안 초등학교 어린이 급식사역이 세차 사역의 수입의 십일조로 일주일에 한번씩 급식하든것이 새로운 후원자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제 매일 급식을 시작 했습니다. 지난해는 농장에 메이지(주식인 옥수수)를 심어 수확하여지금까지 잘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라위 방문때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급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결석률이 줄었다는 말에 사역의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선교의 동역자 분들께 감사하며, 주께서 그 손길을 기억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으로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국민의 80%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매 3월이면 보리고개를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후기사역으로 말라위 프로젝트는 교회 사역에서 학교사역으로 전환하려고 기도 하며 준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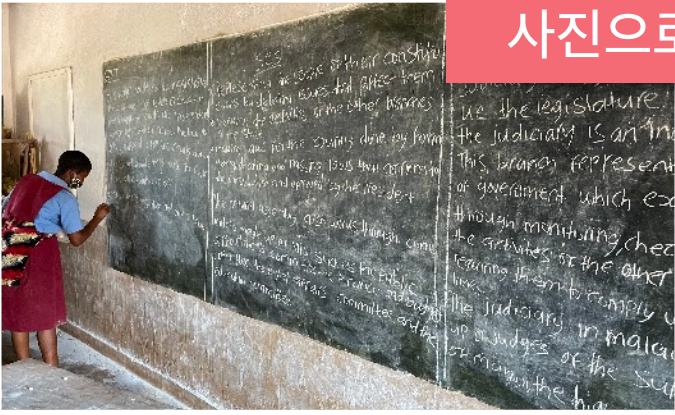


## 2022 년 후기 사역

이제 내년이면 꼭 20년 사역의 시간이 됩니다. 요즘은 선교사가 왜 불효자?..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을 천국에 보내 드리면서 곁에서 함께하지 못한 것이 늘 저희 부부에게 짐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 역시 응급실과 병원입원을 하시며 언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지 늘 조바심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치과 치료가 많이 필요 한것같습니다. 치아 5개가 모두 상해서 많이 힘들어 하며 저역시 백내장등, 눈 치료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20년동안 제대로된 건강검진을 받아 보지 못해 육신적으로도 조금은 지쳐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하시면 5년후 70세가 되는해에 은퇴? 계획도 기도 하며 준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내년에는 미국에 들어가 흠 어머니도 보살펴 드리며 약간의 쉼도 가지면서 말라위 프로젝트와, 미주 PFA 선교동원사역에 저의 후기사역을 계획 하고있습니다. 후기사역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아공에서 허창식,샌디 선교사 드림



# 사진으로 보는 사역지



Mkhalanjoka Primary School G8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남아공 ANMC 주일예배



말라위 비전센터 부지



말라위 CHIFUDU 교회 주일예배



학교급식을 위한 새 주방건축



PFA 선교사 훈련